



김진영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①

누가 진정한 어리석은 자인가?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① 누가 진정 어리석은 자인가?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어리석은 주인공 엠마 보바리를 포함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에 대해 살펴보며, 플로베르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어리석음’이란 무엇인지 탐구해본다.

학습 목표

-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마담 보바리』 개관
- 어리석은 주인공 엠마 보바리
- 『마담 보바리』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
- 플로베르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어리석음이란?

강사 소개

- 김진영

인문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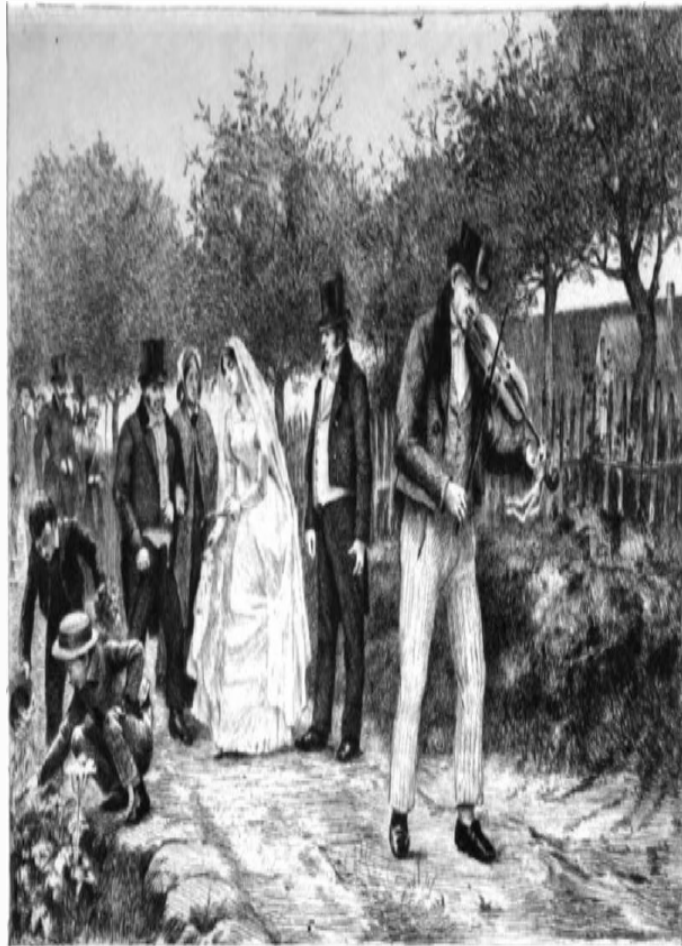
독문학·아도르노·벤야민 전공. 철학아카데미 공동 대표. 역서 『애도 일기』(롤랑 바르트)

강의 보기



- 제목 :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① 누가 진정한 어리석은자인가?
- 강사 : 김진영 (인문학자)
- 구성 : 23분

지식 노트



엠마와 샤를의 결혼

『마담 보바리』의 등장인물

엠마: 샤를 보바리와 결혼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지루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외도한다.

샤를: 평범한 시골 의사로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나, 촌스럽고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지쳐 돌아오는 덕에 부인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한다.

지식 노트



『마담 보바리』(1857)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1821~1880)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 프랑스 사실주의 소설의 걸작으로 꼽힌다.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한 엠마 루오의 방황과 파멸을 그렸다. 노골적인 묘사로 연재되는 동안 화제가 되었으며 섬세한 문체와 긴밀한 구성이 특징이다.

지식 노트



『마담 보바리』의 1905년 프랑스어판에 실린 삽화
평범한 시골 의사 보바리의 아내 엠마는 몽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기대했던 낭만적인 결혼 생활과 현실 간의 괴리에 따분함을 느낀다.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엠마는 결국 외도를 하게 되고 남편 몰래 빚까지 늘어나자 자살하기에 이른다.

강의 노트

『마담 보바리』(1857)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1821~1880)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 프랑스 사실주의 소설의 걸작으로 꼽힌다.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한 엠마 루오의 방황과 파멸을 그렸다. 노골적인 묘사로 연재되는 동안 화제가 되었으며 섬세한 문체와 긴밀한 구성이 특징이다.

〈줄거리〉

평범한 시골 의사 보바리의 아내 엠마는 몽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기대했던 낭만적인 결혼 생활과 현실 간의 괴리에 따분함을 느낀다.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엠마는 결국 외도를 하게 되고 남편 몰래 빚까지 늘어나자 자살하기에 이른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마담 보바리』의 텍스트에서 전복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사랑, 열정, 욕망, 허영 등과 더불어 『마담 보바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테마는 **‘어리석음’**

마담 보바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였는가?

안정된 삶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길을 스스로 걸었다는 점에서 마담 보바리는 한없이 어리석은 여자였다.

『마담 보바리』의 등장인물

- 엠마: 샤를 보바리와 결혼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지루한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외도한다.
- 샤를: 평범한 시골 의사로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나, 촌스럽고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지쳐 돌아오는 턱에 부인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한다.
- 옴메: 약제사. 지적이고 계산적이며 계몽적 세계관으로 신부와 대척한다.
- 뢰르: 장사꾼. 마담 보바리의 허영을 부추겨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파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신부: 종교적 세계관에 심취한 인물이다.
- 로돌프: 엠마의 첫 번째 외도 상대. 부유한 농장주로 엠마의 공상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 레옹: 엠마의 두 번째 외도 상대. 용빌 공증사무소의 젊은 서기
- 쥐스탱: 엠마와 유사한 인간형

『마담 보바리』의 인간 유형

엠마 vs 나머지 인물

엠마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어리석은 자인가?

도대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엠마가 아닌 인물형

- ① 레옹: 엠마와 같이 낭만적이고 순박한 사랑의 감정의 소유자였으나 점차 변모한다.
- ② 로돌프: 바람둥이형 인물. 계산적이고 육욕적인 사랑을 누리고자 한다.
- ③ 약제사 옴메: 지적인 인물 혹은 계산적, 계몽적인 인물
- ④ 장사꾼 뢰르: 경제적인 인물로 여자의 욕망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 ⑤ 신부: 종교적 세계관에 심취해 다른 인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녔다.

엠마가 아닌 인물들의 공통된 특성: **‘합리성’**

엠마라는 인물의 결정적인 특성: **‘무능력’**

→ 자신이 당면하게 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계산하지 못한다.

엠마는 느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그것이 통속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엠마는 자기 신체, 감각, 통속적인 방식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지 못하는 인물

→ 일단 확인되면 몸을 내던져 거기에 빠져든다.

엠마가 가진 특별한 능력: **열정**

등장인물의 구도

엠마 ↔ 엠마가 아닌 인물

열정 ↔ 합리성

『마담 보바리』가 던지는 질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엠마가 어리석은 인물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들이 어리석은가?

어리석음에 관한 질문은 시대로부터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플로베르가 던지는 질문

당시 합리주의에 따라 계몽된 사람들: 소시민 계층

· 시민 계층: 건강한 노동과 지적 능력, 공공의식을 함께 지니는 교양된 계급

· 소시민 계층: 시민의 덕성을 이기주의로 바꾸어 생겨난 일종의 부정적 의미의 시민 계층

플로베르는 『마담 보바리』에서 엠마와 함께 끊임없이 **소시민 사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엠마와 엠마를 둘러싼 인물 사이의 매개체: **소설**

당시의 소시민들은 연애 소설을 읽어도 그것을 실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다.

엠마는 소설 속의 낭만적인 일루전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비합리적 인물이며, 여기에서 엠마의 불행의 시작된다.

‘진짜’ 어리석음이란? - 허영

신부와 옴메의 갈등 → 종교적 세계관과 계몽적 세계관의 대립

플로베르는 죽은 엠마의 곁을 지키던 신부와 옴메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내세우는 믿음이나 이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신부와 옴메의 갈등은 겉보기에 첨예하고 대단히 중요한 이념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믿음이나 이념은 단지 허영일 뿐이다.

믿음과 이념이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닌 교양, 교육, 전통을 통해 습득된 것, 즉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이미지이자 허영

플로베르가 인물들을 다루는 방법

- 그들이 마치 자기만의 믿음, 이념이 있는 것처럼 자기 주장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그리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야유를 퍼붓는다.

플로베르는 허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본질인 양 주장하는 인물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것!

학습 요약

- 『마담 보바리』는 프랑스 사실주의 작품으로 주인공 엠마가 낭만을 좇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의 소설이다.
- 엠마는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음으로써 어리석은 인물을 대변한다.
- 플로베르는 『마담 보바리』에서 열정적이지만 비합리적인 주인공 엠마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여러 주변 인물들을 대비시키면서 “누가 진정 어리석은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 엠마 이외의 인물들 역시 지적 허영이라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다.

인문 퀴즈

1. 다음 중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마담 보바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마담 보바리』는 프랑스 사실주의 소설의 걸작으로 꼽힌다.
- (2) 이 작품은 시골 의사 샤를 보바리와 결혼한 엠마 루오의 방황과 파멸을 그렸다.
- (3) 『마담 보바리』의 주인공 엠마 루오는 ‘계몽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 (4) 『마담 보바리』는 주인공의 자살로 끝을 맺는다.

2. 다음 중 소설『마담 보바리』의 주인공 ‘엠마 보바리’에 대해 가장 적절한 평을 한 사람은?

- (1) 성훈 : 엠마 보바리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해결하려 한 사람이야.
- (2) 요셉 : 엠마는 느낌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하고, 그것이 통속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 (3) 혜진 : 엠마 보바리의 남편 샤를 보바리는 아주 세련된 인물이었어.
- (4) 은진 : 엠마는 연애소설 속의 낭만적 환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어.

인문 퀴즈

3. 프랑스의 사실주의 소설의 걸작으로 꼽히는 『마담 보바리』의 작가 플로베르가 이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1) 플로베르는 주인공 엠마 보바리를 통해 대단한 열정을 가진 엠마가 어리석은 인물인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다른 인물들인 어리석은 인물인지 묻고자 했다.
- (2) 『마담 보바리』의 등장 인물인 신부와 옴메의 대립은 믿음과 이념의 허망함을 상징한다.
- (3) 플로베르는 허영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본질인 양 주장하는 인물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자 했다.
- (4) 『마담 보바리』의 주인공 ‘엠마 보바리’ 이외의 인물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다.

정답

1. (3) 2.(2) 3.(4)

3. (4)은 엠마 보바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Leandre_-_Madame_Bovary_frontispice.jpg?uselang=nl

지식노트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MadameBovary03.jpg>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Gustave-Flaubert2.jpg>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MadameBovary02.jpg>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① 누가 진정 어리석은 자인가?

강사: 김진영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